

이주환 의원 "온천천, 사랑받는 도심 공간으로 가꾸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7.09 19:23 수정 : 2020.07.09 19:23

9일 오후 부산시청서 '내 삶 속의 온천천 만들기 토론회'



9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내 삶 속의 온천천 만들기 토론회'를 마려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도심 하천개발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온천천 환경 개선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은 9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내 삶 속의 온천천 만들기-온천천 환경개선과 효율적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15총선에서 온천천 환 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3개 지역(동래구, 금정구, 연제구)의 후보가 공통 공약을 발표한 후 가진 첫 행사다.

이번 토론회는 온천천 환경 개선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기재 부산 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진우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하혜영 국회 입법 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자로 나서 온천천 개선 방향과 통합관리 방안, 온천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어 이수봉 과장(부산시 하천관리과), 정임수 과장(부산시 자치분권과), 손정원 연구원(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재호 교수(부경대 행정학과), 이준경 대표(온천천네트워킹)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주관한 이주환 의원은 "도심 하천 개발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온천천을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비상(飛上)부산, 희망(希望) 연제'를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